

두산로보틱스

원엑시아 품고 체질 개선 돌입

기업 개요: 국내 협동로봇 1위/글로벌 4위 기업

동사는 협동로봇 제조 및 판매를 주력으로 성장해 온 기업이다. 2018년 제품 출시 후 높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빠르게 침투율을 확대하며 국내 1위, 글로벌 4위(중국 시장 제외) 기업이 되었다. 현재까지 가반하중 5kg~30kg에 이르는 총 14개의 모델을 개발하며 업계 최다 협동로봇 라인업을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원엑시아 인수를 통한 지능형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 본격화

동사는 원엑시아를 통해 기존 협동로봇 단품 판매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턴키 자동화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원엑시아는 협동로봇 기반 EOL 공정 자동화 솔루션 기업으로, 포장 및 적재 전 공정을 자동화하는 3중 통합 솔루션(팔레타이저, 케이스 패커, 케이스 이렉터)을 제공한다. 해당 솔루션은 약 5~6명의 인력을 대체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해 확장성이 높다. 25년 말 원엑시아 수주잔고가 YoY로 약 4배 증가하며 동사와의 시너지가 가시화됨에 따라, 사측은 26년 솔루션 매출 비중이 약 46%까지 확대(25년: 18%)될 것으로 제시했다.

AI 기반 차세대 제품 연내 상용화 목표

동사는 협동로봇→지능형 솔루션→산업용 휴머노이드로 이어지는 단계적 확장 전략을 통해 성장 스토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산업용 휴머노이드 개발에 있어 인간형상 구현보다는 실용적 접근을 고려하고 있다. CES 2026에서 공개한 '스캔앤고'는 이러한 개발 전략의 초기 모델이다. AI와 3D 비전을 접목해 스스로 최적의 경로를 생성하고 그라인딩 및 샌딩 작업 수행이 가능해 조선, 중공업 등의 산업에서 신규 수요 창출이 기대된다. 연내에는 해당 모델 개발 완료 및 납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밸류에이션 및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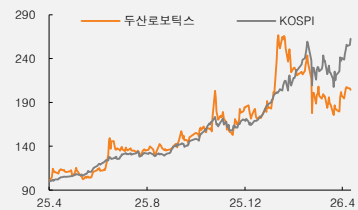
동사는 현재 12MT P/S 182배, P/B 17배 수준에서 거래되며, 최근 1년 평균 및 글로벌 Peer 대비 프리미엄 구간에 위치해 있다. 최근 매출 및 이익 감소는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이는 미국 전방산업 투자 지연에 따른 일시적 영향으로 판단된다. 다만, 협동로봇 업황 회복 시점의 지연이나, 중국 및 일본 기업들과의 경쟁 심화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본 자료는 2026년 4월 10일 탐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결산기 (12월)	2021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십억원)	37	45	53	47	33
영업이익 (십억원)	-7	-13	-19	-41	-59
영업이익률 (%)	-18.9	-28.9	-35.8	-87.2	-178.8
순이익 (십억원)	-7	-13	-16	-37	-55
EPS (원)	-173	-259	-300	-564	-856
ROE (%)	-95.7	-43.1	-6.6	-8.7	-14.8
P/E (배)	-	-	N/A	N/A	N/A
P/B (배)	-	-	17.2	8.4	14.5
배당수익률 (%)	-	-	0.0	0.0	0.0

주: K-IFRS 연결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자료: 두산로보틱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Not Rated
현재주가(26/4/22)			92,900원
영업이익(26F,십억원)			-
Consensus 영업이익(26F,십억원)			-
EPS 성장률(26F,%)			-
MKT EPS 성장률(26F,%)			-
P/E(26F,x)			-
MKT P/E(26F,x)			-
KOSPI			6,388.47
시가총액(십억원)			6,002
발행주식수(백만주)			65
유동주식비율(%)			49.7
외국인 보유비중(%)			3.3
베타(12M) 일간수익률			0.97
52주 최저가(원)			46,400
52주 최고가(원)			120,800
(%)	1M	6M	12M
절대주가	3.7	27.9	86.9
상대주가	-6.2	-23.4	-27.2



[로보틱스]

박선영

seunyoung.park@miraesasset.com

기업개요

협동로봇 (Cobot, Collaborative robot)

전통 산업용 로봇과 달리 산업 현장에서 안전펜스 없이 근로자와 같은 작업 공간에서 안전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설계된 로봇.

가반하중 (payload)

로봇이 들어올리고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최대 무게

플러그-앤-플레이 (plug&play)

새로운 톨이나 모듈을 별도 프로그래밍 없이 연결만으로 즉시 인식·작동할 수 있는 구조

국내 1위/글로벌 4위 협동로봇 제조사

동사는 산업용 로봇의 일종인 협동로봇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성장해 온 기업이다. 2018년 제품 출시 이후 '18~'23 매출액 연평균 40%로 성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플레이어다. 2021년 판매량 기준 글로벌 4위(중국 시장 제외)를 기록한 이후 순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매출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창출하고 있다.

2022년에 미국에 북미 법인, 2024년에 독일에 유럽 법인 설립을 바탕으로 전세계 45개국에 진출하였으며, 100여개 이상의 딜러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 9월에는 동사의 주요 북미 솔루션 파트너사였던 로봇 자동화솔루션 기업 원엑시아(ONExia)를 인수한 후, 12월에 동사 북미 법인과의 합병을 완료해 북미 시장 확장 본격화에 착수했다.

동사는 2020년 6개의 협동로봇 모델을 추가 출시하며, 업계 최다 라인업을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20년에 H시리즈, 23년에 E시리즈, 24년에 P시리즈를 출시하며 제품 포트폴리오를 점차 확대해가고 있으며, ISO 안전 등급 중 최고 수준 인증(PL e, Cat 4) 획득을 기반으로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현재 제품군은 가반하중(5kg~30kg)과 작업반경(900~2030mm)에 따라 5개의 시리즈(E, A, M, H, P시리즈)로 구분되며, 총 14개의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기존 협동로봇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지능형 로봇 솔루션 기업으로의 확장을 추진 중이다. 소프트웨어, AI 기술력을 동사의 협동로봇에 결합하여 로봇 비전문가도 운영할 수 있는 플러그-앤-플레이 제품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편, AI를 기반으로 산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형태의 산업용 휴머노이드 개발을 추진 중이다.

그림 1. 두산로보틱스 25년 품목별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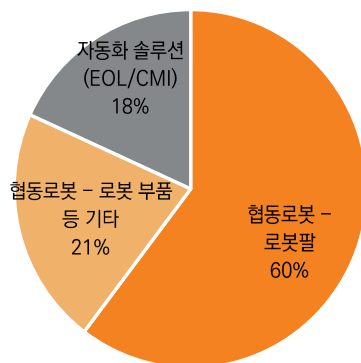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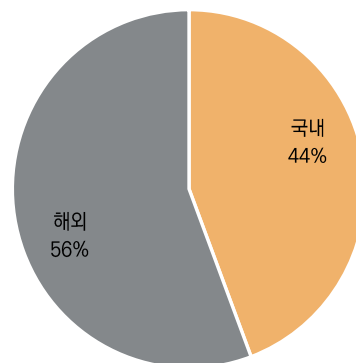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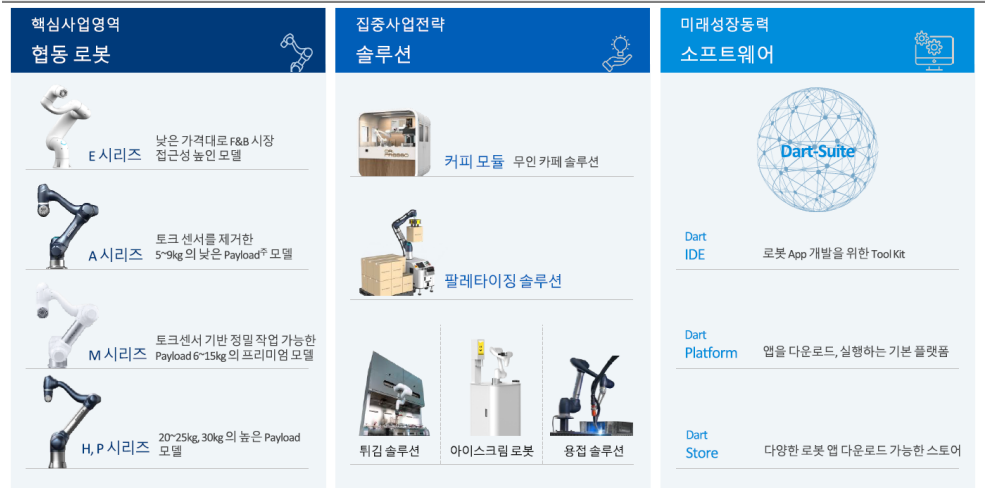
그림 2. 두산로보틱스 25년 지역별 매출 비중



자료: 두산로보틱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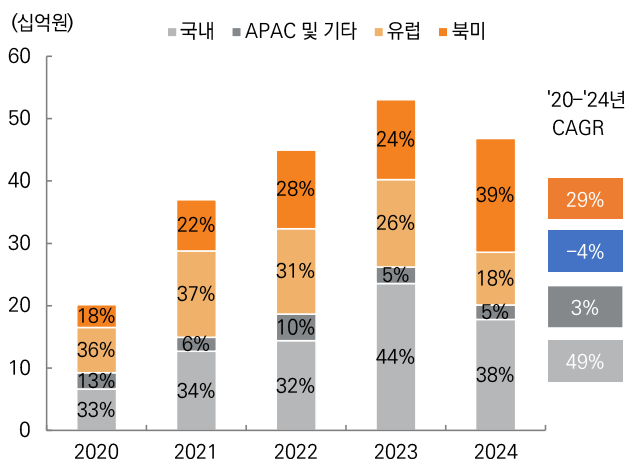
자료: 두산로보틱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두산로보틱스 사업 영역



자료: 두산로보틱스

그림 4. 두산로보틱스 지역별 매출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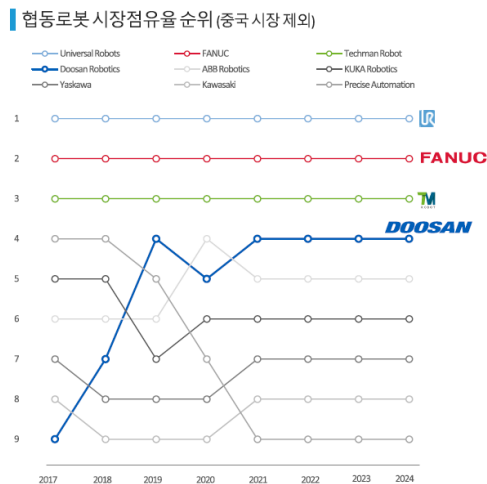
자료: 두산로보틱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두산로보틱스 글로벌 고객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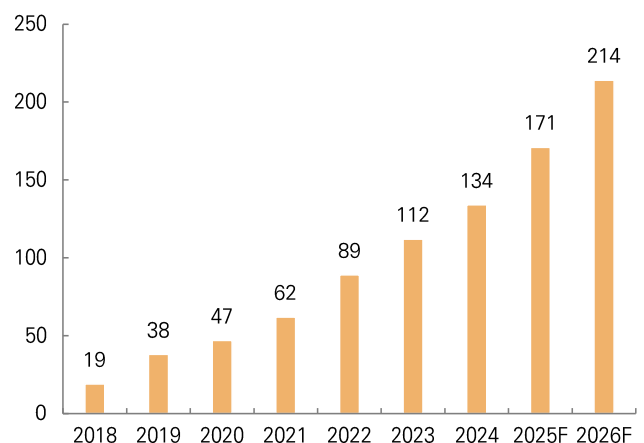
자료: 두산로보틱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협동로봇 시장점유율 순위 추이(중국 시장 제외)



자료: 두산로보틱스

그림 7. 두산로보틱스 판매 채널 수 추이



자료: 두산로보틱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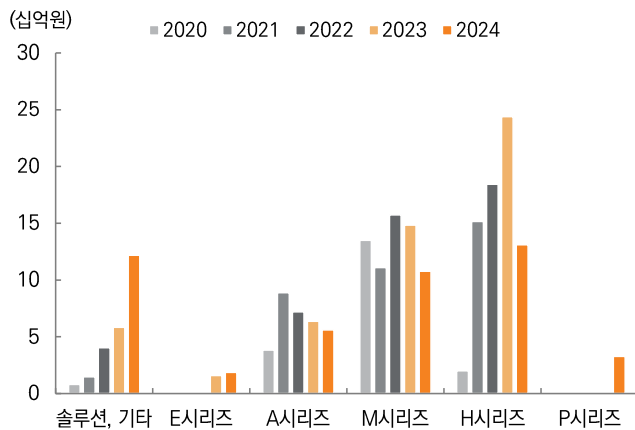
사업 포트폴리오와 성장 전략

① 기존 주력 비즈니스인 협동로봇

협동로봇은 동사의 기존 주력 비즈니스이다. 작년 4분기부터 온기로 원액시아의 매출이 계상되고 있으나, 동사의 협동로봇 비즈니스는 여전히 4Q25 연결 매출 기준 약 67%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 영역이다. 협동로봇은 사람과 분리되지 않은 공간에 설치되어 활용되기 때문에 ISO 안전 등급 인증이 필수인데, 동사는 이 중 최고 등급인 PL e, Cat 4 등급을 획득했다.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유니버설 로봇(UR), 화낙, 테크만 로봇의 뒤를 이어 글로벌 4위(중국 시장 제외)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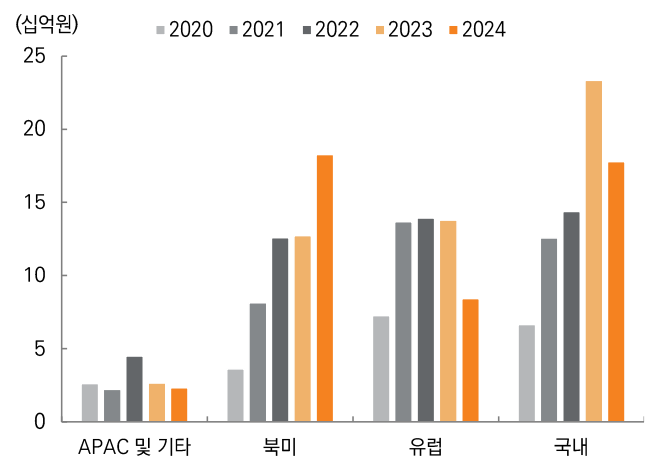
동사는 또한 경쟁사 중 가장 많은 협동로봇 모델을 보유한 기업이다. 용도에 따라 5개의 시리즈(E, A, M, H, P시리즈)로 구분되며, 제품별로 가반하중은 5kg부터 30kg에 이르며, 작업반경은 90cm에서 203cm에 이른다. 특히 20년에 H시리즈를 선제적으로 출시하며, 20kg 이상의 고가반하중 협동로봇 시장을 선점해 22년 점유율을 72%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후 23년에는 작은 크기와 낮은 가격으로 F&B 전용 로봇 E 시리즈를, 24년에는 30kg 고중량 팔레타이징 특화 로봇 P 시리즈를 출시하며, 보다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맞추기 위해 제품군을 넓혀가고 있다.

그림 8. 시리즈별 매출 비중



자료: 두산로보틱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지역별 매출 비중



자료: 두산로보틱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한편, 당사는 협동로봇과 피지컬 AI의 결합을 통한 제품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성능과 품질이 개선된 AI 기반 차세대 협동로봇 출시를 목표하고 있으며, AI 센서를 활용해 하드웨어 떨림 방지, 충돌 안전성 강화, 동작 속도 개선, 동작 속도를 개선하는 등 하드웨어 성능 향상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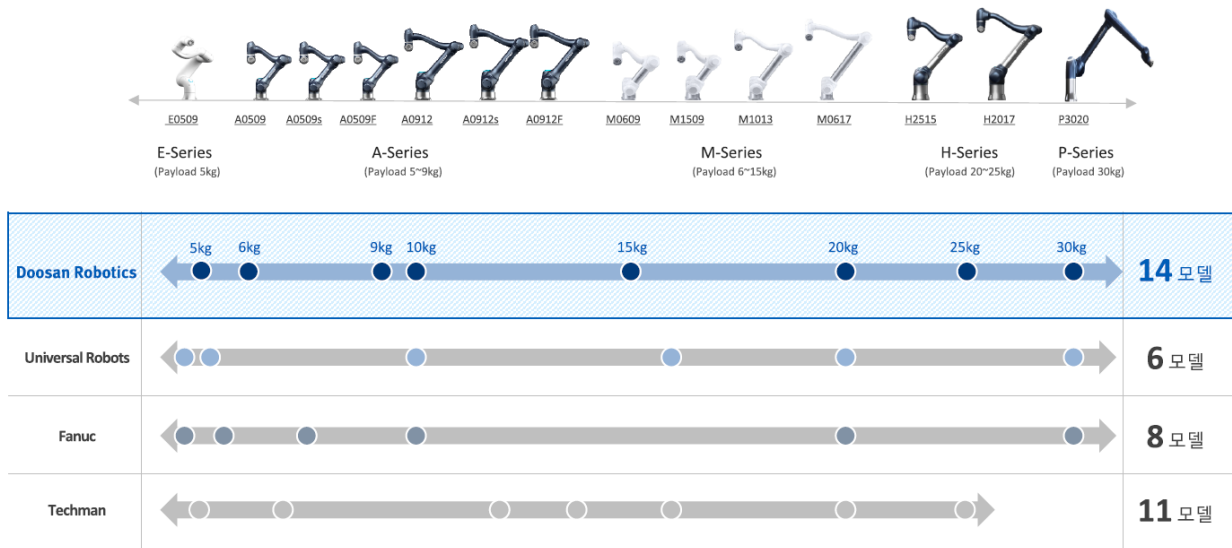
또한 북미 및 유럽 지역에 현지 서비스센터를 구축해 A/S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로봇은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신속한 대응이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현지 대응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화낙, UR 등 주요 경쟁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서비스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고객 접근성과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시리즈별 특징

시리즈명	기반하중(Payload)	도달 범위(Reach)	특징
E시리즈	5kg	900mm	F&B 특화, 기존 제품 대비 60%의 크기의 소형(All-in-one), 설치 용이, 가격 저렴
A시리즈	5kg/9kg	900mm/1,200mm	경량 라인업, 6축에 힘센서 장착, 토크센서 미탑재, 충돌감지 기능 개선
M시리즈	6kg/10kg/15kg	900mm/1,300mm/1,700mm	두산로보틱스의 첫 협동로봇, 6개의 각 축에 토크센서 탑재, 섬세하고 정교한 작업 가능
H시리즈	20kg/25kg	1,500mm/1,700mm	고중량(20~25kg), 팔레타이징 등 산업용, 비좁은 공간이나 이동 로봇에 유연하게 배치 가능
P시리즈	30kg	2,030mm	팔레타이징 특화(5축 설계), 고기반하중(30kg)

자료: 두산로보틱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주요 협동로봇 회사 제품 라인업 현황



자료: 두산로보틱스

② 원엑시아를 통한 자동화 솔루션 비즈니스 확대 및 북미 시장 공략

기존의 협동로봇 중심 사업은 중국산 저가 공세로 시장 내 가격경쟁도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하고 설치 시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특성상 대규모 발주가 제한적이어서 전방산업(제조, 물류, 제약, F&B 등) 투자 사이클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높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전방 투자 위축 영향으로 매출은 24년 -12% YoY, 25년 -30% YoY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동사는 기존 협동로봇 단품 판매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턴키 자동화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미 로봇 시스템통합(SI) 및 자동화솔루션 기업인 원엑시아를 인수하며, EOL 공정 자동화솔루션으로 사업 모델을 강화하고 있다. 로봇의 설계, 설치, 운영을 포함한 자동화시스템을 풀패키지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별도 통합 과정 없이 즉시 활용한 턴키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락인 효과와 함께 마진을 높ی겠다는 전략이다.

EOL (End-of-Line) 공정

제조, 물류 라인의 최종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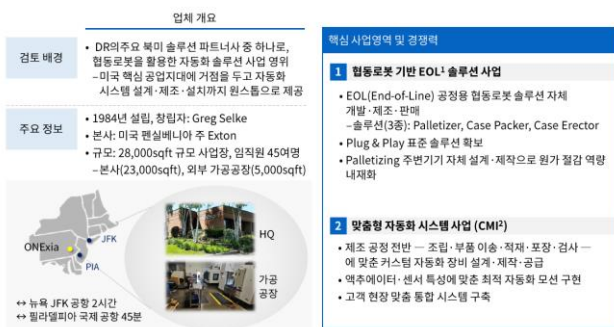
완제품 패키징 및 적재하는 제조라인 끝단의 공정

원엑시아는 1984년 설립된 북미 자동화 솔루션 기업으로, 협동로봇 기반 EOL 공정 솔루션과 맞춤형 제조공정 자동화 시스템(CMI)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물류창고 후단공정에 특화된 패키징 자동화 솔루션을 기반으로 2021~2024년 연평균 24%의 매출 성장세를 기록했다. 최근 미국 법인과의 합병을 완료하며 북미 시장 내 사업 확장 기반을 강화했으며, 향후 동사의 솔루션 사업 확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엑시아의 핵심 경쟁력은 EOL 공정 기반의 통합 솔루션이다. EOL 공정용 삼중 협동로봇 솔루션은 1) 팔레타이저(palletizer), 2) 케이스 팩커(case packer), 3) 케이스 이렉터(case erector)로 구성되며, 박스 조립 → 제품 포장 → 적재/하역까지 전 공정을 자동화한다. 해당 솔루션은 약 5~6명의 인력을 대체할 수 있어 고객사에 높은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또한, EOL 공정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식품, 제약, 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에서 완제품 포장 업무에 공통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존 커피/튀김 모듈보다 확장성이 높은 시장으로 판단된다.

그림 11. ONExia 회사 개요 및 경쟁력

패키징 EOL(End-of-Line) 자동화 시장에서 25년 업력의 협동로봇 솔루션 보유, 고객 맞춤형 자동화 시스템 개발, 제공



자료: 두산로보틱스

그림 12. M&A를 통한 비유기적 성장 전략

M&A를 통한 In-organic 성장 전략

- 지능형 로봇 솔루션 중심의 사업 모델 진화를 위한 솔루션 핵심 기술 역량 확보 전략 추구
- ONExia 인수로 확보된 EOL 솔루션 라인업을 바탕으로 자동화 최대 시장인 북미 시장 공략
- '30년 ONExia 북미 매출 USD 84.2m 목표

인수 배경

- 글로벌 로봇 기업 주도로 End-to-End 솔루션 개발
-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고품질의 제품과 일관된 영업/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장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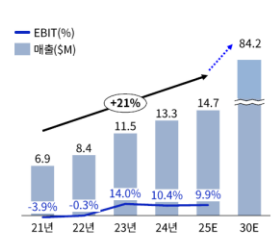
북미 협동로봇 EOL 솔루션 시장 확대

- 제품, 가격 경쟁력 강화
- 북미 커버리지 확대를 통한 판매기회 확대
- 사업 모델 다각화

M&A 개요

- ONExia Inc. 지분 100% 인수
- 인수금액: USD 28.9m ~ 30.3m (한화 약 398~417억)
- '25년 3분기말 연결재무제표 반영 예정

인수 후 ONExia 매출 성장



- 인수 후 두산 로보틱스와의 시너지를 통해 '30년까지 매출 USD 84.2m 성장 목표

자료: 두산로보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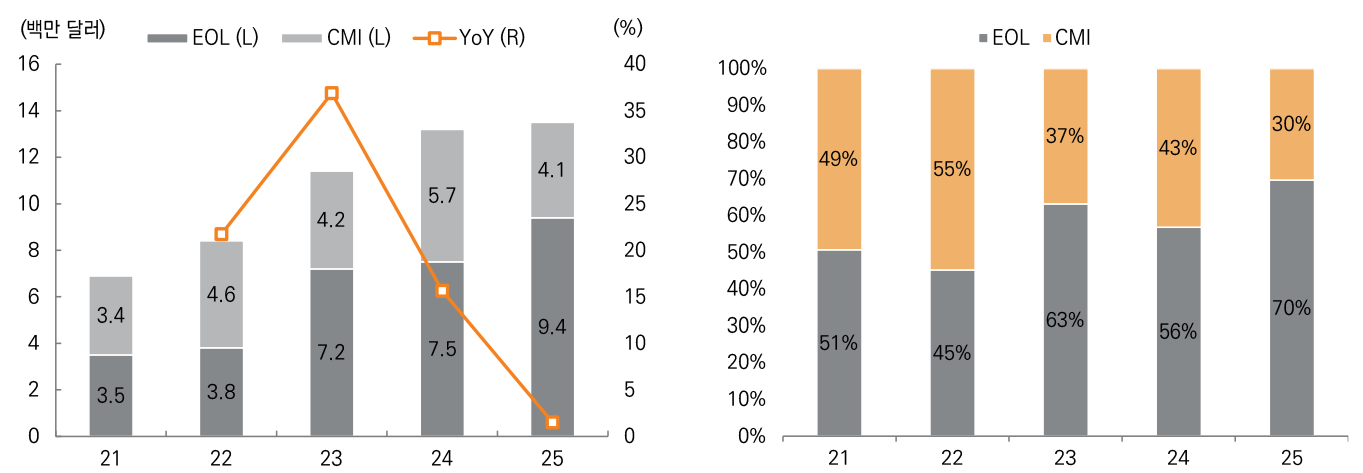
인수 이후 시너지도 가시화되고 있다. 기존에는 원엑시아가 화낙 및 동사의 협동로봇 하드웨어를 혼용해 솔루션을 제공해왔으나, 향후 동사 제품 비중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동사의 글로벌 영업망을 활용한 원엑시아 솔루션 판매 확대가 예상되며, 실제로 인수 이후 대형 수주 증가로 2025년 말 기준 원엑시아 수주잔고는 전년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한편, 동사는 원엑시아와의 협업을 통해 AI 기반 팔레타이저 및 디팔레타이저 솔루션을 개발 중이며,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기존 EOL 솔루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매출 확대 기회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사측은 2026년 전체 매출에서 솔루션 비중이 약 46%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원엑시아 매출은 2030년까지 약 84.2백만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하여 두산밥캣 채널과의 시너지를 통해 북미 시장 내 팔레타이징 솔루션 확산이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림 13. 원엑시아 부문별 매출 추이

그림 14. 원엑시아 부문별 매출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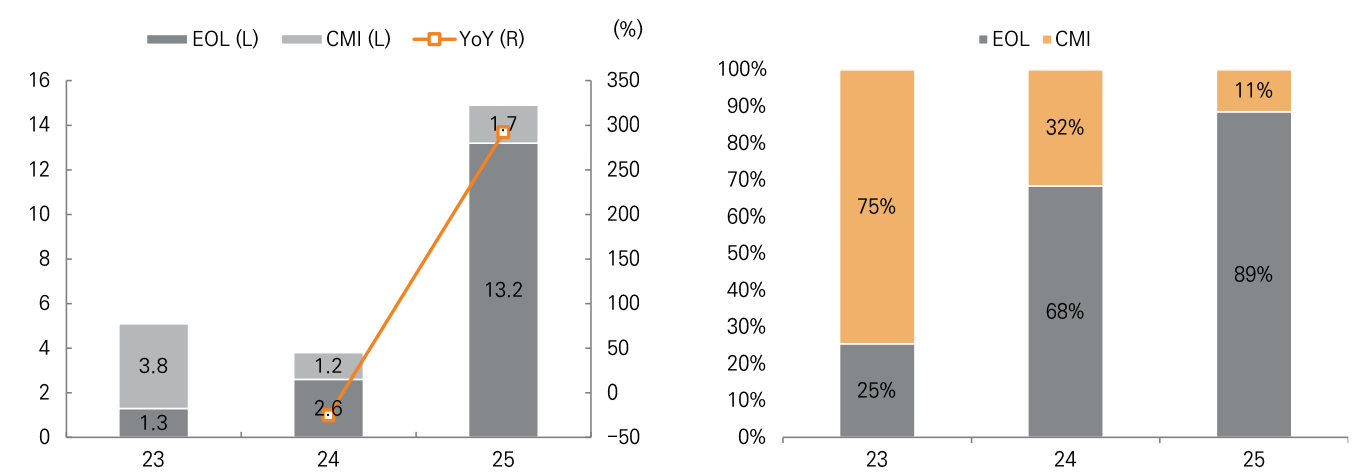


자료: 두산로보틱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두산로보틱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5. 원엑시아 부문별 수주잔고 추이

그림 16. 원엑시아 부문별 수주잔고 비중 추이



자료: 두산로보틱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두산로보틱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③ 차세대 제품: AI가 결합된 실용적인 형태의 휴머노이드

25년을 기점으로 동사가 중장기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산업용 휴머노이드 개발 계획을 구체화한 점이 주목된다. 동사는 제조 현장에서 숙련공 수준의 작업 수행이 가능한 산업용 휴머노이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범용의 인간 형상의 로봇보다는 특정 공정에서의 작업 효율을 극대화하는 구조를 만드는 실용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 즉, 완전한 인간의 형상을 구현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공정 수행에 최적화된 구조를 지향하며, 바퀴 기반 이동이나 로봇팔 중심의 구성 등 인간의 몸체에서 필요한 형태만 취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용 휴머노이드 전략의 초기 모델로 CES 2026에서 ‘스캔앤고(Scan&Go)’를 선보였다. 해당 솔루션은 로봇팔과 자율이동로봇(AMR)을 결합한 형태로, AI와 레이저 기반 3D 비전을 활용해 대형 구조물 표면을 스캔하고 최적의 작업 경로를 자율 생성해 그라인딩 및 샌딩 작업을 수행한다. 최대 자동화율은 90% 수준이며, 수작업 대비 약 20% 빠른 속도로 작업한다. 또한 플러그앤플레이 방식으로 별도의 설계도 입력 없이 즉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동사는 연내 해당 모델의 개발 완료 및 실제 납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캔앤고가 적용되는 샌딩, 웰딩 등 고난도 공정은 숙련 인력 의존도가 높고 인건비 부담이 큰 영역으로, 자동차, 조선, 항공기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풍력 발전소 윈드 블레이드(50~100m), 항공기 동체, 건물 외벽 등 대형 구조물 작업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활용 범위가 넓다. 이는 동사가 범용 시보다는 산업 현장에서 즉각적인 생산성 개선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공정 특화 AI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동사는 이러한 차세대 제품 개발을 위해 분당에 약 2천평 규모의 로봇 이노베이션 센터를 설립했다. 외부 전문 인력 영입과 함께 연구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선행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분산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역량을 통합해 제품 개발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림 17. CES 2026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스캔앤고(Scan&Go)



자료: 두산로보틱스

그림 18. 두산로보틱스가 지향하는 산업용 휴머노이드



자료: 두산로보틱스

실적 및 밸류에이션

4Q25 실적 리뷰

동사의 4Q25 실적은 연결 기준 매출액 130.0억원(+13% YoY, +28% QoQ)을 기록하며, 2Q25을 기준으로 턴어라운드하며 2분기 연속 QoQ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작년 9월 인수한 북미자동화 기업 원엑시아의 매출이 3Q25부터 자동화솔루션(EOL/CMI) 사업부문 매출로 계상되고, 4Q25부터는 온기로 계상되며 비유기적 성장 효과가 반영된 결과이다.

품목별로는 협동로봇(로봇팔)이 매출 70.3억원(-20% YoY, +10% QoQ), 협동로봇(부품 등 기타)이 매출 17.3억원(-35% YoY, -15% QoQ), 자동화솔루션(EOL/CMI)가 42.4억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협동로봇 사업 부진으로 내수가 42.6억원(-14% YoY)로 감소하였다. 수출 역시 협동로봇 사업은 부진하였으나 원엑시아의 자동화솔루션 매출이 합산되며 87.5억원(+34% YoY)으로 증가하면서 다섯 분기만에 YoY 성장세로 돌아섰다.

통합 R&D 센터 구축과 M&A에 관련된 일회성 비용 증가로 영업비용은 294.5억원(+4% YoY)으로 증가하여, 영업적자 -164.5억원(적자지속 YoY, OPM -126.5%)가 지속되었다. 판관비 주요 항목 중 인건비는 26.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하고 연구개발비가 80.9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YoY 증가하였는데, 이는 R&D 인력 인건비의 일부가 연구 개발비로 편입된 결과이다.

표 2. 4Q25 실적 비교표

(십억원, %, %p)

	4Q24	3Q25	4Q25		
			발표치	YoY (%)	QoQ (%)
매출액	11.5	10.2	13.0	13.2	27.9
영업이익	-16.9	-15.3	-16.5	적지	적지
당기순이익	-23.1	-12.9	-16.7	적지	적지
영업이익률 (%)	-146.7	-150.2	-126.5	-13.8	23.7
순이익률 (%)	-201.3	-126.5	-128.1	-36.4	-1.6

자료: 두산로보틱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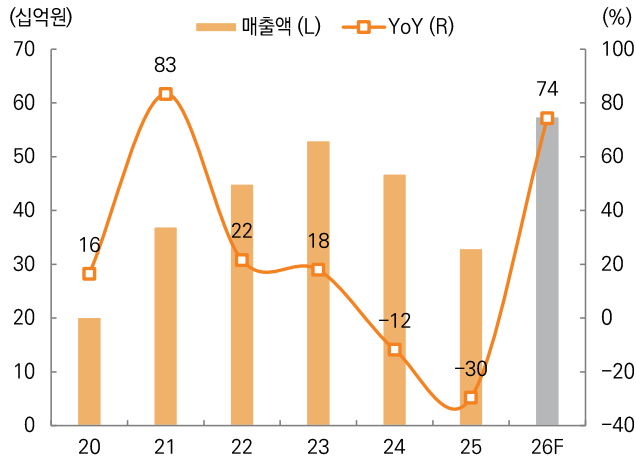
표 3. 분기별 실적 추이

(십억원, %)

	1Q24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2023	2024	2025
매출액	10.9	14.4	10.0	11.5	5.3	4.5	10.2	13.0	53.0	46.8	33.0
협동로봇-로봇 Arm	8.3	12.7	9.1	8.8	3.7	2.8	6.4	7.0	45.9	38.9	19.9
협동로봇 -부품 등 기타	2.6	1.8	1.0	2.6	1.6	1.7	2.0	1.7	7.1	7.9	7.1
자동화 솔루션 (EOL/CMI)	-	-	-	-	-	-	1.8	4.2	-	-	6.0
영업이익	-6.9	-7.9	-9.6	-16.9	-12.1	-15.7	-15.3	-16.5	-19.2	-41.2	-59.5
순이익 (지배)	-2.8	-3.7	-6.9	-23.1	-9.4	-16.6	-12.9	-16.7	-15.9	-36.6	-55.5
매출 성장률 (YoY)	3.1	10.1	-19.8	-31.9	-51.5	-68.6	1.3	13.2	18.0	-11.7	-29.6
협동로봇-로봇 Arm	-9.0	3.9	-20.4	-33.0	-55.6	-77.9	-29.7	-20.5	11.4	-15.3	-48.9
협동로봇 -부품 등 기타	81.0	95.5	-13.5	-27.8	-38.1	-1.1	108.4	-34.6	90.5	11.6	-10.8
자동화 솔루션 (EOL/CMI)	-	-	-	-	-	-	-	-	-	-	-
영업이익률 (%)	-63.3	-54.6	-95.6	-146.7	-229.3	-345.3	-150.2	-126.5	-36.1	-88.0	-180.3
순이익률 (지배, %)	-26.2	-25.7	-68.6	-201.3	-178.4	-365.5	-126.5	-128.1	-29.9	-78.1	-16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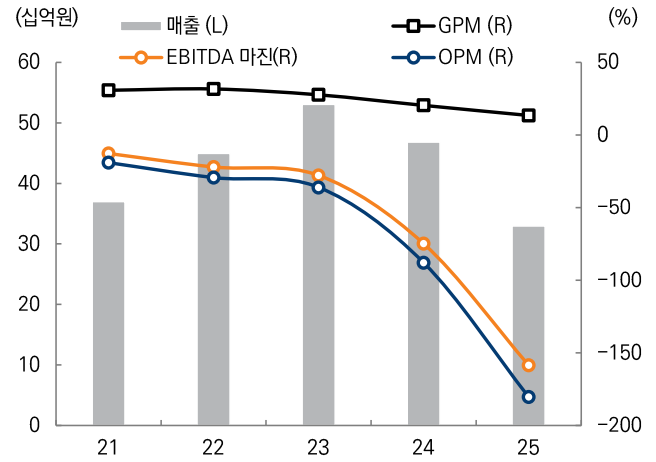
자료: 두산로보틱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9. 두산로보틱스 매출 및 매출성장률 (연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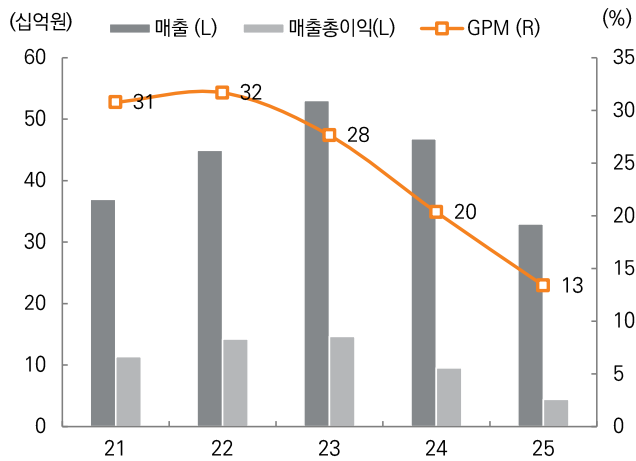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0. 두산로보틱스 매출 및 마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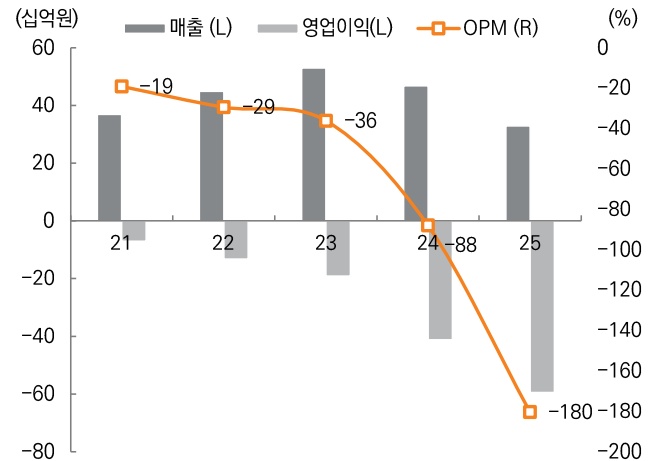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1. 두산로보틱스 매출총이익 및 매출총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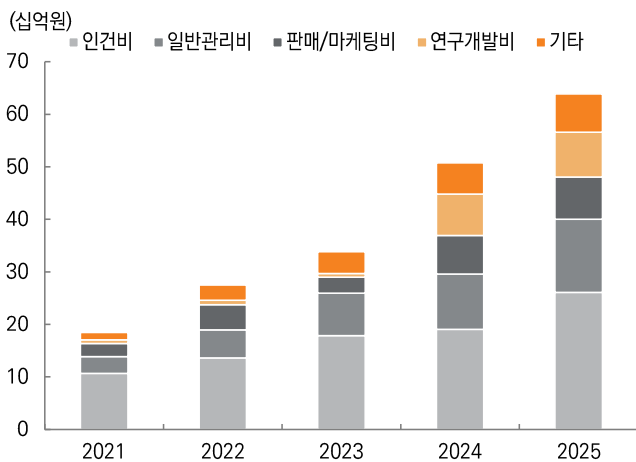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2. 두산로보틱스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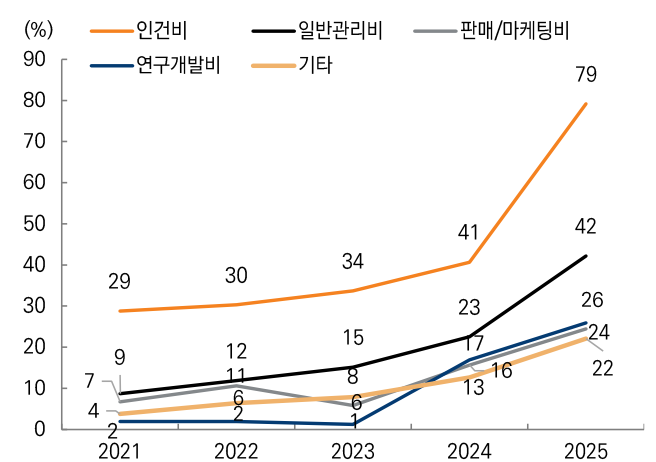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3. 두산로보틱스 판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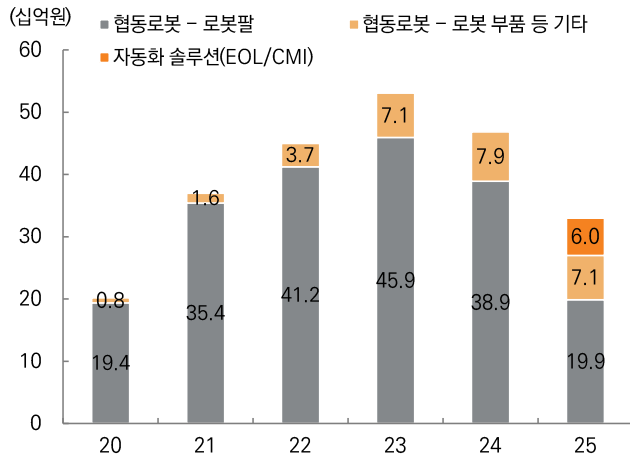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4. 두산로보틱스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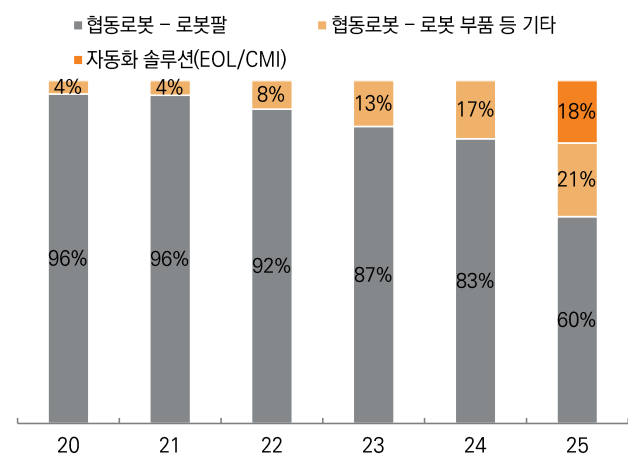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5. 두산로보틱스 품목별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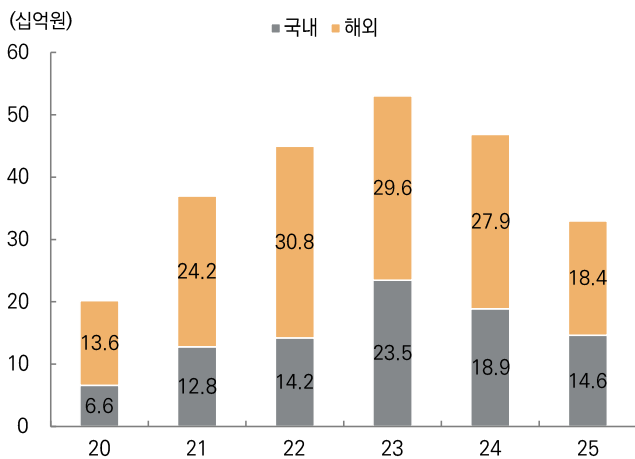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6. 두산로보틱스 품목별 매출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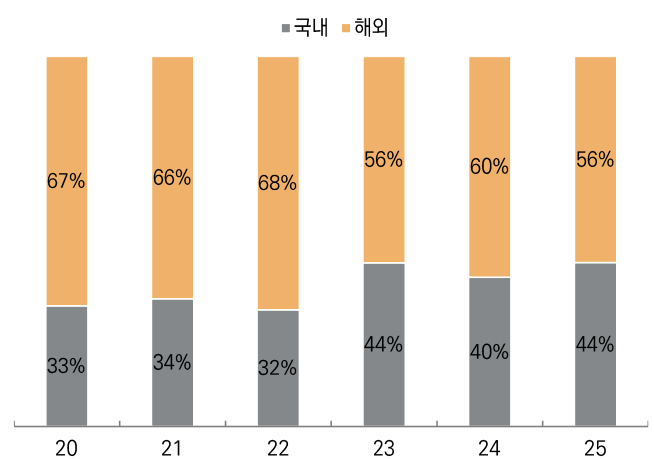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7. 두산로보틱스 지역별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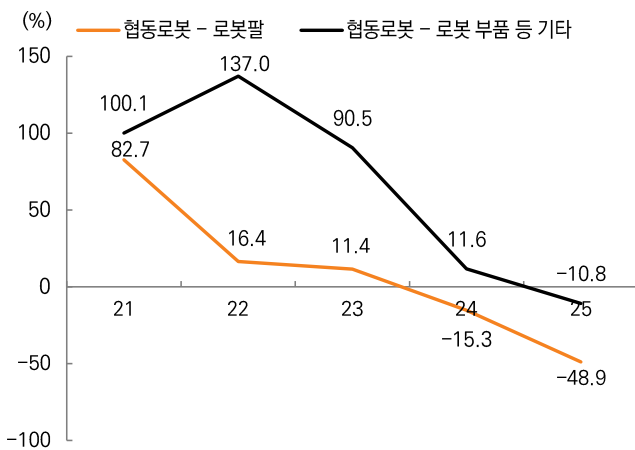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8. 두산로보틱스 지역별 매출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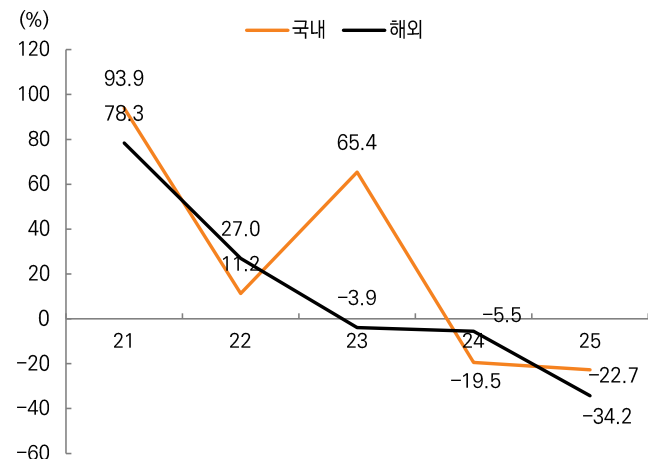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9. 두산로보틱스 품목별 매출성장률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0. 두산로보틱스 지역별 매출성장률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가 추이 및 밸류에이션

동사의 주가는 현재 12개월 후행 P/S 182배, P/B 17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는 작년 9월 노란봉투법 통과 기대감 및 CES 2026 등 로봇 산업 관련 모멘텀이 반영된 결과로, 최근 1년 평균(12MT P/S 145배, P/B 13배) 및 글로벌 Peer 대비 프리미엄 구간에 있다.

국내 로봇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초기 성장 단계에 위치해 있어, 실적보다는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멀티플에 선반영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협동로봇 시장의 침투율 확대 및 산업 자동화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밸류에이션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글로벌 피어의 경우 산업용 로봇 및 산업자동화 솔루션 사업을 기반으로 협동로봇 사업을 병행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며, 협동로봇 퓨어 플레이어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산업용 로봇 시장은 이미 성장률이 둔화된 성숙 시장에 해당해, 이에 따라 보수적인 멀티플이 적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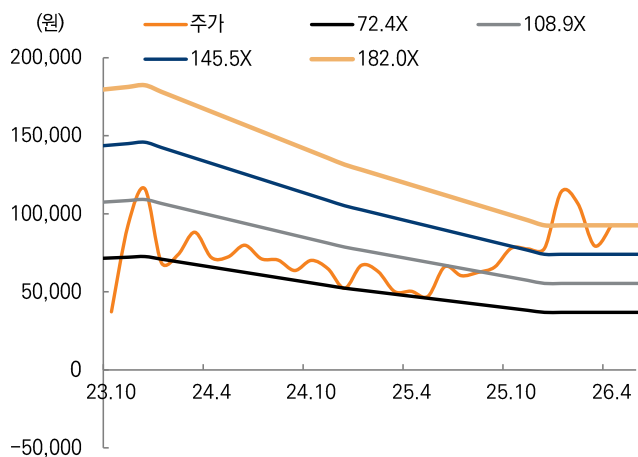
표 4. 주요 협동로봇 기업 Peer Valuation

(십억원, %, 배)

기업명	시가총액	매출			영업이익률			ROE			PER			PSR			PBR		
		25	26F	27F	25	26F	27F	25	26F	27F	25	26F	27F	25	26F	27F	25	26F	27F
화낙	59,164	7,294	7,847	8,512	19.9	21.0	22.8	9.3	9.2	10.5	37.5	37.6	32.6	7.3	7.5	7.0	3.4	3.4	3.3
야스카와 전기	13,258	5,145	5,376	5,699	8.7	10.7	11.8	7.7	9.8	10.5	39.4	29.2	26.1	2.6	2.5	2.3	2.9	2.8	2.6
가와사키 중공업	24,216	19,485	21,686	23,189	5.6	6.2	6.8	14.9	12.4	13.1	23.7	28.4	24.7	1.1	1.1	1.0	3.2	3.4	3.1
오므론	9,772	7,337	7,861	8,362	6.7	7.0	8.1	2.9	4.2	5.9	42.9	31.3	21.5	1.2	1.2	1.2	1.2	1.3	1.2
일본 평균	26,603	9,815	10,693	11,441	10.3	11.2	12.4	8.7	8.9	10.0	35.9	31.6	26.2	3.0	3.1	2.9	2.7	2.7	2.6
도보트	2,514	97	156	215	-27.1	-12.7	-3.8	-4.7	-3.0	1.7	-	-	-	25.1	16.3	11.8	4.3	6.4	6.3
씨아선	5,066	785	-	-	-2.6	-	-	-5.9	-	-	-	-	-	6.0	-	-	5.4	-	-
중국 평균	3,790	441	156	215	-14.8	-12.7	-3.8	-5.3	-3.0	1.7	-	-	-	15.5	16.3	11.8	4.9	6.4	6.3
레인보우로보틱스	11,582	34	57	160	-7.3	7.8	17.5	1.1	3.9	15.3	8,178	2,163	502.5	339.4	202.3	72.4	-	86.5	-
두산로보틱스	6,015	33	76	123	-180.3	-44.4	0.3	-14.8	-8.4	-0.9	-	-	-	182.4	78.8	48.9	17.3	17.9	18.3
뉴로메카	832	19	-	-	-78.4	-	-	-177	-	-	-	-	-	40.0	-	-	55.6	-	-
한국 평균	6,143	29	67	141	-88.7	-18.3	8.9	-63.7	-2.2	7.2	8,178	2,163	502.5	187.3	140.6	60.6	36.4	52.2	18.3
ABB	259,055	47,233	54,011	56,974	18.2	19.9	19.8	31.0	31.4	28.5	35.0	30.1	29.6	4.8	4.8	4.5	10.8	8.9	7.8
테라다인	87,815	4,536	6,193	7,430	20.4	27.5	31.0	19.7	33.6	36.8	102.3	60.2	44.0	18.9	14.1	11.8	21.2	18.4	14.9
테크만 로봇	1,568	83	-	-	6.1	-	-	3.2	-	-	211.3	-	-	15.8	-	-	4.8	-	-
전체 평균	40,071	7,674	11,474	12,296	-17.5	4.8	12.7	-9.4	10.4	13.5	1,083	340	97.3	53.7	36.5	17.9	11.8	16.6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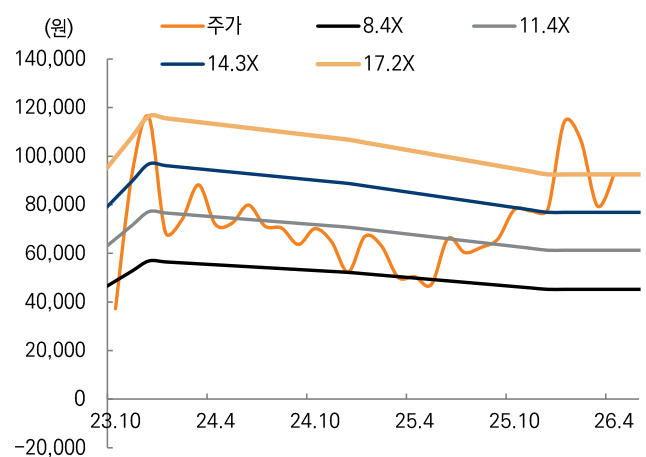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1. 두산로보틱스 12M Trailing PSR 밴드



자료: 에프앤가이드,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2. 두산로보틱스 12M Trailing PBR 밴드



자료: 에프앤가이드,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Q&A

실적 및 향후 전망

Q) 25년 실적이 부진했던 원인과 향후 회복 가능성은?

A) 2025년은 연결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30% 역성장하며 부진. 작년 1~2분기 미국 관세 영향으로 고객사들의 투자 집행 연기로, 특히 북미 지역 실적이 크게 위축된 것이 주요 원인. 2Q25를 저점으로 3Q25부터는 QoQ로 2배 이상 성장하며 회복세 진입. 올해는 협동로봇 시장 턴어라운드와 함께 원엑시아를 통해 기획보한 백로그를 바탕으로 성장 예상.

한편, 영업적자 확대는 통합 R&D 센터(로봇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 R&D 인력 채용으로 인한 비용 증가, 원엑시아 인수와 관련된 일회성 비용 발생에 기인.

Q) 원엑시아 인수효과 외 협동로봇 자체 사업의 성장성은?

A) 25년 별도 기준 매출 273억 달성. 25년 1~2분기 실적 부진의 기저효과로 26년 상반기에는 YoY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 25년 하반기부터 매출 회복세 확인되고 있으나, 회복 초입 구간으로 QoQ로도 성장 전망.

협동로봇은 전통 산업용 로봇 대비 성장성이 큰 시장. 제조, 물류 현장뿐 아니라 F&B, 제약, 항공우주, 통신, 의료 등 적용 가능 산업이 확장됨에 따라 중장기 수요 성장 기대.

Q) 4분기 급여 항목이 크게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데?

A) 실질적으로 급여 감소가 아닌 회계상 분류 변경 영향. 연구인력의 급여가 연구개발비용으로 재분류되면서 비용 항목간 이동 발생. 오히려 실제 증가하여 작년도 사업보고서 기준 250명 이상으로 확대. 특히, 북미 법인에서 추가 채용 진행 중이며, 급여 성격의 비용은 앞으로도 증가할 예정.

Q) BEP 달성 기준 및 예상 시점은?

A) BEP 달성 기준 연 매출 1,200억원 수준 예상. 25년과 26년 매출은 원엑시아 효과로 증가하나, 중장기 성장을 위해 투자와 비용이 집중되는 구간일 것. 27년부터 지능형 솔루션 매출 확대 기반으로 점진적 수익성 개선 기대되며, BEP 달성은 27년 이후 예상.

Q) 26년 경영 계획 및 전망?

A) 원엑시아 실적이 연결로 반영되며 외형 성장 예상. 26년에는 솔루션형 매출 비중이 약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원엑시아와 협업을 통해 개발한 AI 팔레타이저, 디팔레타이저 출시 계획. 특히, 북미향 매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

내년쯤 차세대 협동로봇 출시를 통해 시장 성장 견인 계획. 이에 더해, 북미/유럽에 협동로봇 현지 A/S 서비스센터 구축 예정.

원엑시아 관련

Q) 원엑시아를 인수하게 된 배경?

A) 협동로봇 사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매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요성 인식. 협동로봇은 성장성은 높으나 다품종 소량생산에 활용되는 특성상 매출을 크게 스케일업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

단순 하드웨어 공급보다 로봇을 통합하는 SI 역량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 고객 입장에서 로봇 도입 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합 및 운영 안정화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되나, 판매·설치·운영까지 포함한 통합 솔루션 제공 시 Plug & Play 형태 구현 가능.

원엑시아는 주요 북미 솔루션 파트너사 중 하나로, EOL(End-of-Line) 패키징 공정에서 높은 자동화 효율과 재구매율을 확보한 기업. 실제 공장에서 자동화의 ROI가 높게 나타나는 EOL 공정의 솔루션 사업을 확장하고자 전략적 인수.

Q) 25년 원엑시아 수주잔고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이유?

A) 원엑시아는 2021~2024년 연평균 20% 이상 성장한 기업으로, 2025년 매출은 약 13.5백만 달러(약 200억원) 기록. 다만 인수 과정에서 영업 공백이 발생하며 단기적으로 매출 성장률은 둔화된 상황. 원엑시아의 기술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동사를 통한 영업력 확보로 수주 크게 확대 가능했던 것. 인수 이전에는 영업 활동이 제한적이었으나, 인수 이후 당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영업력 강화로 대형 수주 계약이 다수 체결되며 수주 잔고가 빠르게 증가. 특히 미국 주요 고객으로부터 약 3~4백만 달러 규모의 수주를 확보하며 백로그 급증. 이에 캐파 일정을 앞당겨 1분기에 캐파 확장을 위한 공장 이전 추진 중. 향후 실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25년 말 기준 원엑시아의 수주잔고(15백만 달러)는 전년 매출(13.5백만 달러)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보. 내년 매출 성장의 안정적 기반 확보. 리드타임(3~9개월)을 감안할 때 대략 2개 분기 안에는 수주가 매출 반영 예상(제품별로 팔레타이징이 3주. 케이스 팩커/이렉터가 15주 정도의 리드타임 보유). 이에 따라 26년 매출의 약 절반은 솔루션 매출로 구성될 전망. 지난 1~2월에도 유사한 흐름 이미 확인.

Q) EOL은 어떤 산업 혹은 어떤 공정에 많이 들어가나?

A) EOL은 물류 산업 쪽으로 가장 많이 들어감. 하지만, EOL 공정은 산업보다는 공정 중심 시장. 박스 포장 및 적재와 같이 표준화된 공정에서 빠르게 도입 가능. 제약, 헬스케어, 자동차 부품 등 어떤 산업에서든 마지막에 제품이 포장되고 출하되는 끝단에서 작용.

로봇 산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침투율이 아직 낮지만, 그나마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공정이 공정 자체가 획일화되어있는 공정. 제품을 박스에 넣거나 박스를 옮기는 팔레타이징 공정 등은 단순히 들고 나르는 단순한 공정이라서 로봇으로 24시간 운영 가능하지만 사람이 하면 굉장히 지루하고 반복적인 공정.

Q) 원엑시아 EOL 공정에 활용되는 대표 솔루션?

A) 주요 솔루션은 (1) 케이스 이렉터(case erector)- 박스 조립, (2) 케이스 팩커(case packer) - 픽애플레이스 및 밀봉, (3) 팔레타이저(palletizer) - 컨베이어 벨트에 박스 적재의 세 가지. 이 세 가지 솔루션을 통합 적용할 경우 약 5~6명 인력을 대체 가능. 팔레타이징과 같은 개별 제품 판매하는 것보다 전체 라인 형태로 공급 시에 고객 접근성과 즉시 활용성이 높아 유리. 반면, 고객이 로봇 단품을 사서 그리퍼, 컨베이어 벨트 등과 직접 접목하고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는 건 상대적으로 긴 시간 소요.

Q) 원엑시아의 글로벌 경쟁사는?

A) 경쟁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SI 업체는 기술력은 좋은데 기업규모가 작고 판매채널이 많지 않아 난립. 특정 경쟁사를 정의하기 어려운 시장 구조. SI 업체가 다수 존재하나 EOL 특화 업체는 제한적. 원엑시아는 기술력 대비 규모가 작아 채널 확장에 한계가 있었으나, 인수 이후 모회사 영업망 및 자본을 활용한 확장 전략 추진 예정.

Q) 원엑시아의 CMI 매출은 성장성이 낮아보이는데?

A) CMI는 제조 단에서 자동화(컨베이어 벨트에서 박스에 물품 넣기)를 의미. CMI 매출은 제조공정 자동화 영역으로 경기 및 신규 공장 투자에 연동되는 구조. 성장 산업은 아님. 공장이 지어질 때 자동화 설비가 들어가서, 신규 공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주량이 많아지는 구조. 반면, EOL은 신공장에도 들어가지만 기존 공장에 인력을 대체하여 로봇 솔루션이 깔리기 때문에 성장성이 더욱 가파름.

기타**Q) AI는 자체 개발 중인가?**

A) 내부 인력이 AI를 개발 중. 다만, 스캔앤고는 캐나다 회사랑 같이 협업으로 개발. 당장 범용 AI 모델을 만들기보다는 특정 공정 최적화할 수 있는 모델 개발 주력. 엔비디아 아이작(Isaac) 기반 훈련 등을 활용 중이며, RFM 수준의 범용 모델은 아직 초기 단계. 공정 특화 데이터 기반 지능 고도화 전략 추진.

Q) 동사의 휴머노이드 개발 방향은?

A) 피지컬 AI 기반 산업용 휴머노이드 전략 추진. 특정 공정(샌딩 등)에서 숙련공 수준 이상의 작업 수행을 목표. 꼭 인간 형태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 바퀴에 협동로봇팔이 달린 로봇을 구상. 로봇 이노베이션 센터(약 2,000평 규모)를 중심으로 선행 기술 개발 진행. 외부 전문가 영입 및 조직 통합을 통해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목표.

Q) 휴머노이드 관련 정부 과제가 매출에 어느 정도 기여할까?

A) 정부 과제가 5개년 계획.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내 상품화. 당장은 매출에 기여도가 있기 보다는 정부지원금 수취에 따라 연구개발 비용 개선에 도움. 3년 뒤 제품화를 통해 기여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능형 솔루션 역량 강화 효과 기대.

리스크

재무 리스크

전방 산업 투자 지연에 따른 외형 축소와 R&D 투자 확대 및 M&A 관련 비용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며 영업손실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올해 역시 인력 총원 및 R&D 투자 확대 방향으로 단기적인 적자 구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업 리스크

협동로봇 시장의 회복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와 일본 전통 산업용 로봇 업체들의 협동로봇 시장 진입 확대로 경쟁 심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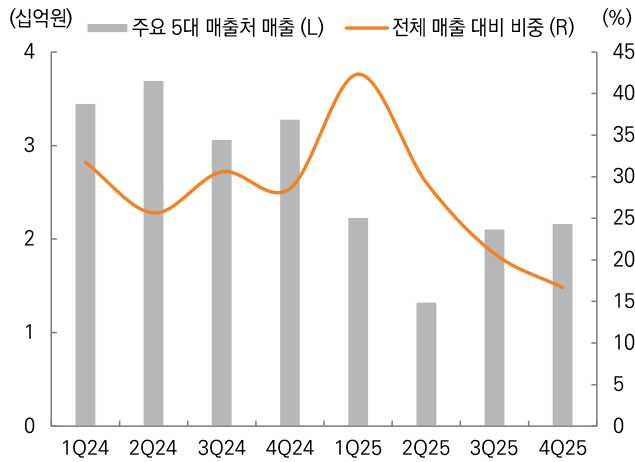
다만, 원엑시아 인수를 통해 솔루션 기반 사업으로 확장하며 사업 및 고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실제 상위 5개 고객사 매출 비중은 약 30% 수준에서 4Q25 기준 17%로 낮아지며 고객 집중도가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가 리스크

(주)두산이 2월 25일 동사 주식 1,170만주에 대한 주가수익스왑(PRS) 계약을 조기 정산을 완료했으며, 이에 따라 (주)두산의 지분율이 68.1%에서 50.0%로 하락하였다. 당초 PRS의 계약기간은 3년이었으나 조기에 수익을 확정지으면서, 단기 오버행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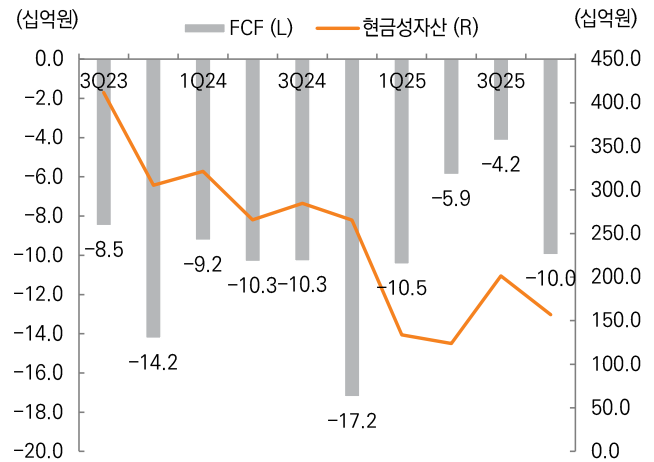
한편, 로봇/AI 테마주 특성상 위험자산 선호 변화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뚜렷한 실적 및 수익성 개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로봇 섹터センチメント 기반의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33. 주요 고객사 매출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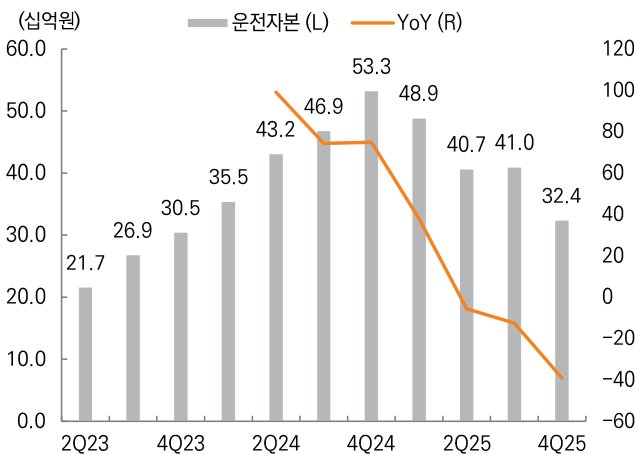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4. FCF 및 현금성자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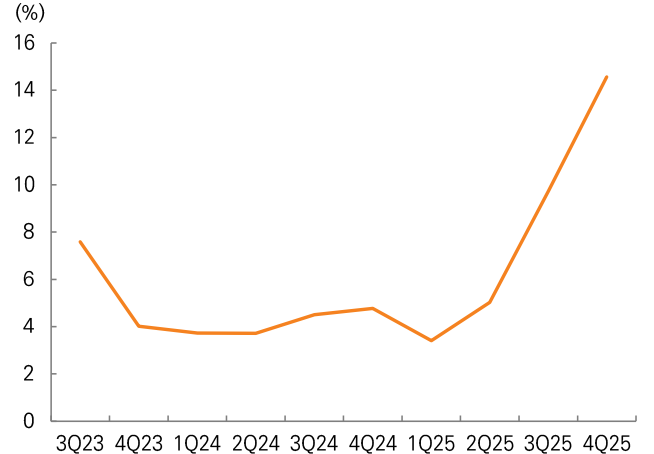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5. 운전자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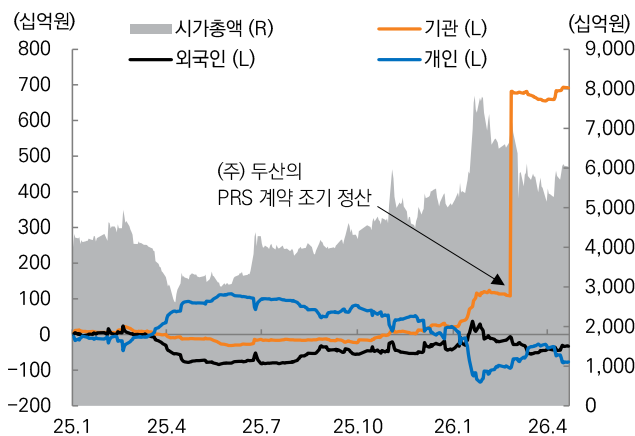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6. 부채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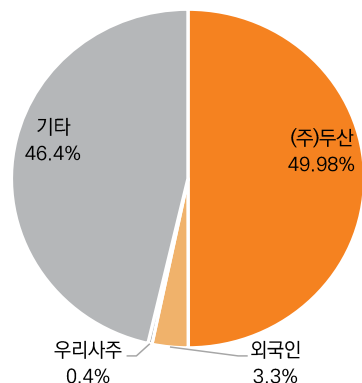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7. 투자자별 순매수량 vs. 시가총액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8. 지분율



자료: DAR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두산로보틱스 (454910)

예상 포괄손익계산서 (요약)

(십억원)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45	53	47	33
매출원가	31	38	37	29
매출총이익	14	15	10	4
판매비와관리비	27	34	51	64
조정영업이익	-13	-19	-41	-59
영업이익	-13	-19	-41	-59
비영업손익	0	3	4	4
금융손익	0	3	12	8
관계기업등 투자손익	0	0	0	-1
세전계속사업손익	-13	-16	-37	-55
계속사업법인세비용	0	0	0	0
계속사업이익	-13	-16	-37	-55
중단사업이익	0	0	0	0
당기순이익	-13	-16	-37	-55
지배주주	-13	-16	-37	-55
비지배주주	0	0	0	0
총포괄이익	-12	-16	-37	-54
지배주주	-12	-16	-37	-54
비지배주주	0	0	0	0
EBITDA	-10	-15	-35	-52
FCF	-27	-30	-47	-30
EBITDA 마진율 (%)	-22.2	-28.3	-74.5	-157.6
영업이익률 (%)	-28.9	-35.8	-87.2	-178.8
지배주주귀속 순이익률 (%)	-28.9	-30.2	-78.7	-166.7

예상 재무상태표 (요약)

(십억원)	2022	2023	2024	2025
유동자산	39	426	342	267
현금 및 현금성자산	7	305	266	157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1	22	28	20
재고자산	13	14	29	19
기타유동자산	8	85	19	71
비유동자산	24	30	80	132
관계기업투자등	0	0	3	9
유형자산	9	8	10	19
무형자산	7	13	9	54
자산총계	63	456	422	399
유동부채	15	13	15	28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7	8	8	8
단기금융부채	1	1	1	3
기타유동부채	7	4	6	17
비유동부채	5	4	4	23
장기금융부채	3	4	2	17
기타비유동부채	2	0	2	6
부채총계	20	18	19	51
지배주주지분	43	439	403	349
자본금	24	32	32	32
자본잉여금	101	506	506	506
이익잉여금	-83	-99	-137	-192
비지배주주지분	0	0	0	0
자본총계	43	439	403	349

예상 현금흐름표 (요약)

(십억원)	2022	2023	2024	2025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3	-27	-44	-17
당기순이익	-13	-16	-37	-55
비현금수익비용가감	6	5	6	14
유형자산감가상각비	3	3	4	5
무형자산상각비	1	1	2	2
기타	2	1	0	7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및 부채의 변동	-16	-16	-25	15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2	-12	-7	10
재고자산 감소(증가)	-9	-1	-18	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1	2	-1	5
법인세납부	0	0	-2	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3	-86	5	-90
유형자산처분(취득)	-4	-3	-3	-13
무형자산감소(증가)	-5	-6	-5	-2
장단기금융자산의 감소(증가)	-1	-76	35	-34
기타투자활동	-3	-1	-22	-4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9	411	-1	-2
장단기금융부채의 증가(감소)	2	1	-3	17
자본의 증가(감소)	40	413	0	0
배당금의 지급	0	0	0	0
기타재무활동	-3	-3	2	-19
현금의 증가	3	298	-40	-109
기초현금	4	7	305	266
기말현금	7	305	266	157

자료: 두산로보틱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예상 주당가치 및 valuation (요약)

	2022	2023	2024	2025
P/E (x)	0.0	-387.1	-92.7	-91.1
P/CF (x)	0.0	-576.3	-111.0	-121.6
P/B (x)	0.0	17.2	8.4	14.5
EV/EBITDA (x)	0.4	-482.6	-88.9	-93.3
EPS (원)	-259	-300	-564	-856
CFPS (원)	-136	-201	-471	-641
BPS (원)	880	6,770	6,210	5,378
DPS (원)	0	0	0	0
배당성향 (%)	0.0	0.0	0.0	0.0
배당수익률 (%)	-	0.0	0.0	0.0
매출액증가율 (%)	21.6	18.0	-11.7	-29.6
EBITDA증가율 (%)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조정영업이익증가율 (%)	적지	적지	적지	적지
EPS증가율 (%)	적지	적지	적지	적지
매출채권 회전율 (회)	4.7	3.2	1.9	1.4
재고자산 회전율 (회)	4.7	3.9	2.2	1.4
매입채무 회전율 (회)	6.9	7.9	7.3	6.6
ROA (%)	-27.3	-6.1	-8.3	-13.5
ROE (%)	-43.1	-6.6	-8.7	-14.8
ROIC (%)	-50.1	-38.5	-52.7	-52.5
부채비율 (%)	46.4	4.0	4.8	14.6
유동비율 (%)	263.5	3,191.2	2,214.3	959.5
순차입금/자기자본 (%)	-9.1	-85.9	-67.7	-51.7
조정영업이익/금융비용 (x)	-24.2	-13.6	-100.8	-92.6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매매를 권유한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